

온라인 토론방 주제별 국민 의견 요약·정리

2021. 7



본 자료는 '국민참여 미래교육과정 홈페이지(<https://eduforum.or.kr>)'의 온라인 토론방에 게시된 글을 단순 정리·요약한 것으로 국가교육회의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목 차

1. 학생 주도성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적용 방안	1
2. 미래사회 학습을 위한 교과별 학습내용 적정화 방안	2
3. 서·논술형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	3
4. 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과 실현 방안	5
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6
6.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에 대한 의견과 적용 방안	8
7.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9
8. 자유 주제 토론	11

온라인 토론방에 게시('21.6.23(수)~'21.7.11(일))된 국민 의견을 **요약·정리**하면서, 각 토론방에서 논의된 내용을 요약 수준에서라도 가급적 모두 담고자 하였습니다(단, 토론방 주제에서 지나치게 벗어나거나 타인의 글에 대한 비방을 담은 글은 포함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생 주도성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적용 방안

주 제	의 견
학생/학습 관련 학생 주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맞춤형 학습: 동일한 시간, 동일한 교재로 학습을 해서는 주도성을 기르기 어려움. 개별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학생 주도성을 기를 수 있음. • 기초학습 능력 강화: 바른 학습법을 통한 기초학력 향상 없이는 주도적으로 공부하기 어려움. • 철학 수업의 필요성: 자신의 결정에 대해 책임지고, 행위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필요함.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면 주도성을 기를 수 있음. • 학습 내용 선택: 스스로 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며, 얼마나 성취했는지 단계별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함. 또한 학생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함. • 프로젝트형 학습 제시: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들이 해당 교과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 본연의 목적을 등한시 한 결과 적정한 시수 감축을 하지 못함.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여 전문가의 입맛대로만 교육과정이 구성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선택, 계획, 진행, 보고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학습을 제시해야 함. • 교과서 내용 구성: 학생들이 사고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도록 교과서가 잘 가공되어 있음. 관심 있는 내용에 집중하여 심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면 주도성을 끌어올릴 수 있음.
교사/교수 관련 학생 주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역량 강화: 거꾸로 학습, 하브루타 수업, 온오프 블렌디드, 프로젝트 수업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길러야 함. •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대한 권한을 단위학교 및 교사, 학생에게 위임하여 내용, 분량 등을 학교와 학급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함. • 교과 내용 축소: 내적동기와 학습의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하려면 지식 전달 중심의 학습이 아닌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과 내용을 대폭 축소해야 함. 방대한 교과 내용보다는 사고를 자극하고 토의를 자유롭게 하여 학습하는 것이 역량 강화에 더 알맞음.
학생 주도성과 관련된 제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를 통한 스스로 원하는 공부의 선택이 필요함. • 대입제도 변화 필수: 1. 학생의 선택에 대한 자율권과 그 선택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 2. 일제고사 폐지 및 대입에 유리한 과목만을 선택하는 상황 탈피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수 3. 입시제도의 개편(상대평가를 통한 성적과 대입에 대한 불안감 해소) 4. 대입제도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함.(유사 의견-선취업 후진학). • 평가제도 개선: 방대한 교과서 내용에 부담이 되어 전달 위주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평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과정 및 교과서 편찬 구조 개선: 편찬의 주도권이 학생들을 접할 기회가 적은 교수한테 있고, 교사는 검토만 할 수 있음.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함. • 선행학습의 폐해: 선행을 원하는 교육체계와 시스템이 있는 한 주도적 학습을 하기 어려움.
학생 주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지원체계의 개선: 교육지원청은 행정의 전달 창구가 아닌 기초단위에서부터

관련된 행정체계 개편	<p>교육 자치를 구현하는 핵심기구로 변모해야 함. 지자체와 함께 지역자원들을 엮어 학교 체제를 재구조화해야 함. 이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가 학습자를 더욱 세밀하게 관찰하고 맞춤형 교육을 하여 주도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비율부터 줄여야 함.
진로 관련 학생 주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경험 기회 증대: 주도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동기와 필요성이 필요함. 이는 학생의 진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학생의 진로 경험의 기회가 늘어난다면 확대가능함. • 다양한 활동 필요: 학생 적성과 진로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 주도성을 확대해야 함.

2. 미래사회 학습을 위한 교과별 학습내용 적정화 방안

주 제	의 건
초등 학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역량과 특기를 살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내용은 적당하나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학습 부담을 줄여야 함. - 정해진 시간에 배워야 할 것이 많을 경우, 주입식 교육이 되며 학생들은 충분히 배울 수 없음. - 가정 상황이 다양함(예: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등)을 고려한 학습 내용 필요 - 공립초와 사립초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 필요(예: 공립초 초3영어 vs 사립초 초1영어) - 초3 사회 교과와 어휘가 어렵고 수학 교과도 양이 많음 - 초1 국어와 수학 교육과정의 불일치(한글교육 관점에서) • 깊이가 사라진 초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가지를 배움에 있어 깊이 있게 배우고, 더불어 함께 체험하는 것이 중요함.
학습 내용 양(많다, 적다)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주제로 구성, 그 내용이 학생들의 마음에 녹아들고 자신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학습량이 축소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 없이 수업 시간 내용을 이해하는가' 가 기준이 될 수 있음. • 학습내용의 많고 적음은 교육의 목적과 관련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 위주 교육인지 학생 개개인의 특성, 개성, 능력 즉 자기정체성을 존중하는 교육에 따라 학습량에 대한 부담이 다르게 다가옴. • 학생이 혼자서 자료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의 과제라면 적정 •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인 교육격차로 학습량이 적정, 부족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음.
고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 축소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움이 경이로움이 되도록 학습량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만의 해석, 심도 있는 이해,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배움, "나한테 수학은 어렵지만, 정말 멋진 것은 분명해." • 고등학교의 양이 너무 많아 사교육 없이 이해하기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이과와 화학, 물리, 수학 수준이 어려움, 대폭 축소 필요 - 수학 교육과정이 어려운 것은 '활용' 파트 때문이며, '활용' 파트를 없애야 함.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적으로 10개 이상의 직업군을 거칠 일반인을 위한 공통과학, 공통사회 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하게 직업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능력주의 열패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통찰적 교육 필요(예: 공통과학)
고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을 높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과 학습 내용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과학 학습 수준 상향 조정 필요 • 수학, 과학 교과 내용 수준을 높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선진국에 비해 과목이 세분화되고 수준을 낮게 가르치고 있음. 특히 수학, 과학 교과 - 수포자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수학 내용을 줄였어도 수포자가 더 늘어남.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량을 줄인 결과, 킬러 문항 중심의 수능 문제 출제로 학생들의 부담이 가중됨. • 어려운 걸 빼기보다는 쉽게 가르치는 대안 필요
학습 내용과 수준의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고등학생과 교원에게 별도로 교과목별 세부 분량을 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예: 빼도 좋은 단원, 배우기 어려워 학습시수를 늘여야 할 단원 등) • 필수교과로 국영수사과에 C 언어를 배워야 함. • 교육과정의 학습의 양의 많고 적음은 지식위주, 문제풀이식 수업 방법과 관련 있음/ 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상세히 서술한 교과서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삶과 연계된 수업-평가-기록의 변화 필요 • 학습 내용의 양과 수준이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학교에서 기본교육(독서, 글쓰기, 맞춤법, 연산 등)을 강화하고, 반복과 연습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교육의 부담을 줄여야 함. • 많은 양의 학습 내용에서 정답을 찾는 교육보다 시간을 주고 학습 내용을 내면화하는 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말 필요한 항목을 이해하기 쉽게, 시간에 얽매이지 않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 필요
학교급별 학습내용의 양과 수준의 차이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별 학습내용의 양과 수준의 차이가 많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이 올라갈 때 학습량이 급격히 늘어 힘들(초등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교) - 학습 보충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국가 운영의 학습지원사이트 필요(예: 꿀맛닷컴) - 이전 단계 교육내용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계적 교육과정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고등의 공통교육과정을 늘이고, 선택을 줄여야 함. - 온오프블렌디드 딥러닝: 표준이론과정(통합교과과정)을 온라인 제작, 오프라인수업은 보충으로 활용, 토론, 질문과 답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꾸로 학습처럼 온오프블렌디드 딥러닝 학습 필요 - 공교육 수업은 인공지능이 하고, 선생님은 관리하는 방안 추천

3. 서·논술형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

주 제	의 건
서·논술형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교육이 변화해야 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학 교육 강화: 논리학, 정치, 철학, 문학, 인문학 독서 교육을 강화해야 함. • 체계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에게 사실과 자신의 주관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친 뒤에 평가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사교육으로 논술교육받은 학생들

	<p>만 점수 잘 받는 사태가 벌어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쓰기 교육을 강화해야 함. -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업을 많이 해야 함. <p>• 학생 수준에 맞는 글쓰기 학습 자료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딱딱하고 어려운 글보다는 학생들이 쓴 좋은 글들을 소개하고 학습자료로 활용하기 <p>• 교사별 평가, 교사별 교육과정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내용과 방식이 교사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수업-(서·논술형) 평가의 일체화를 위해 교사마다 별도의 평가, 교육과정이 가능해야 함. <p>• 평가(안)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인 평가(안)을 제공하여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공 (여러 교과에서 읽기, 비판적 사고, 쓰기 교육 등)
<p>서·논술형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확보 방안</p>	<p>• 공식적인 검토 및 교차 채점 체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채점-교육지원청-교육청 검토체계 마련/ 지역단위 교사 위원회 포함하여 교육지원청 교차 채점 강화 - 같은 과목, 유사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교차 검토 - 교차 채점 강화,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 협의를 거치는 제도 마련 - 교사의 단독평가보다 외부교사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평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실시 <p>• 평가 기준 공정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척도를 상, 중, 하 3단계로 간극을 크게 하여 공정성 확보 - 표준화된 채점 기준에 다양한 세분화된 목록을 만들어 발생 가능한 상황에 사전대비하기 <p>• 교사 역량 강화: 수업과 평가(채점)에 있어 교사의 능력이 향상되어야 함.</p> <p>• 서술형 평가 점수 배점 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에 대한 점수화를 크게 하지 말기, 학생들의 (수업, 과제) 참여도와 수행 과정을 중점으로 평가하기 - 서·논술형 평가 비중을 객관식 문항으로 할 수 없는 부분만 평가하는 정도로 제한적으로 실시함.
<p>서·논술형 평가 실시에 대한 우려 및 반대</p>	<p>• 서·논술형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므로, 초·중고 단계에서는 읽고 쓰는 수업만 적극 운영하고 서·논술형 평가는 대학에서 실시하였으면 함.</p> <p>• 학생의 답변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점수를 내야만 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면 서·논술형 평가라 하더라도 사고력을 키워주기보다 틀에 박힌 답을 쓰는 평가로 변질됨. 아예 서·논술형 평가를 없애는 것이 극단적이지만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함.</p> <p>• 서·논술형 평가로는 공정성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입시 비리와 사교육 조장 가능성이 매우 우려됨.</p> <p>• 자기 생각을 적는 논술은 정답이 없어 공정성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입시에 큰 혼란이 생김. 또한 서·논술형 평가를 실시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p>

4. 학교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과 실현 방안

주 제	의 건
인성교육의 의미와 실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개별성, 사회성, 도덕성, 자율성을 중심에 놓는 교육 • 조직/단체에서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관계를 맺으며 지내기 위한 교육 • 개개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절 문화를 배우는 교육 •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할 수 있으며, 불안·분노와 같은 심리에 대해 알게 해 주는 심리학 교육 • 타인의 개성과 장점을 존중하고 같은 상황에서도 나와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갈등 대처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 민주시민교육, 환경교육, 인권교육, 양성평등교육을 포함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을 기르는 교육 • 사람 사이의 다름을 기준으로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인성교육-> 직업의 귀천의식을 없애야 함.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 •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학급 회의를 통해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경험 쌓기 • 친구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며 절충해갈 시간과 기회 제공 • 인성 또한 교과처럼 점수화하기. 이것이 힘들다면 학기말 통지표에 강점과 보완할 점을 서술하여 가정 통지: 반대 댓글 5건 달림. • 교사의 전문성 부족 극복 방안: 강사풀을 확보하여 온라인 쌍방향 수업의 형태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이고 알찬 수업을 교육부나 내지는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지고 진행. 혹은 학교에서 자율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끼리 분야를 나누어 전문성을 갖추어 수업을 준비하고 반을 순회하며 수업을 진행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실천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 관심 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을 연결하여 현장 경험 등에 관한 이야기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마련 • 진로체험기간을 정해 일경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다양한 직업을 스스로 경험해볼 수 있게 함. • 중소기업 방문 및 신입직원 하는 일 체험(키자니아 같은 건 안됨) • 고등학교 진로수업의 목표가 어디가 되었든 일단 대학에 집어넣고 보자는 식인 것 같아 답답. 예전처럼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고 직업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 직업 외에도 지속할 수 있는 자신의 취미생활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필요.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진 교사들이 대학입시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다양한 사용가치와 생산가치, 그것이 만들어내는 직업, 사회변화와 가치의 변화 등에 대해 통찰력을 심어줄 수 있는 수업을 해야 함. • 실업계, 인문계고등학교 낮은 성적의 학생들도 도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꼭 대학만 답이 아니라는 사실 등 다양한 길을 알려주어야 함.
인문학적 소양교육, AI·소프트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에 민주시민의 영역을 생태시민 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지구생태시스템까지 확장한 명시화가 필요

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을 위한 개선 및 실천 방안	<p>핵심 역량에도 환경 관련 요소 포함시킬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에 걸 맞는 수업 시간의 확충, 초등학교에서는 독립교과 혹은 독립영역 편제, 중등학교에서는 교원의 확보와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의 편성
기타 강화되어야 할 교육에 대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AI·소프트웨어, 코딩, c언어)교육: 게시글 10개 •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 인권(학생인권, 교권)교육, 소통공감교육 •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법지식, 금융·경제(창업관련)교육, 노동교육: 게시글 4개 • 국민으로서의 공동체의식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21세기에 맞지 않는 교과목은 과감하게 폐지/선택으로 돌리기 • 독서교육(초), 실용글쓰기(제안서, 기안, 감상문 등)교육(중), 자격증(엑셀, 파워포인트, 한국사, 한문 등) 교육(고) • 성소수자, 다문화 출신, 난민, 특정 종교 출신 청소년 등 다양한 개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대 댓글 2개 : 학생 인권은 이미 강화되어 있으며, 학생은 학생다워야 함 • 청소년지도사 등 외부 전문가가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내실있게 교육할 필요 • 인성교육과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아우르는 ‘시민교육(사회감성교육)’ 교과편성 후 기존 교과와 융합하여 교육 • 안전교육, 감염병 대응교육: 게시글 3개 • 논리적 글쓰기 교육 • 성교육 • 민주시민교육 • 예술교육 강화 및 예술 교과군에 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필요 • 국어교과와 별개로 독서 시간 확보를 통한 독서 교육 강화 • 기술공학수업을 실과수업에서 분리, 확대 및 실습기구 지원

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주 제	의 건
도입배경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의 더 구체적 설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의 도입 동기, 취지, 구체적인 실현 방식, 문제점의 보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설명 필요 - 실제 운영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 • 4차 산업혁명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실력의 하락,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AI, 경제학 교육 등을 위하여 수학교육 강화 필요, 교사들은 반대만 하지 말고 역량을 키워야 함
대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에 공감과 설득력을 더하려면, 대입제도 개편과 함께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평가제, 과목 쏠림 현상, 학교 간 차이에 따른 대학에서의 선발 방법은 무엇이 될 것인가. - 대학에서는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는가? - 고교학점제와 대입이 정리되어 방향을 잡아야 2022 개정 교육과정 전체가 설득력을 갖게 될 듯 - 교육을 교육답게 하려면 절대평가제도로 변화해야 함. - 조정표준점수를 통한 과목쏠림 현상 완화 <p>• 고교학점제, 대학평준화와 함께 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가 신자유주의인지 아닌지는 학생의 선택권과 함께 동반하는 전제조건들을 살펴야 하는데, 그 전제가 되는 대학평준화 정책과 성취평가제 전환에는 미온적임. - 학생들이 각자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소질을 개발한다는 고교학점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학평준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 - 대학평준화의 당위성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으나 대학평준화가 필요하지만 안되고 있는 현실에 맞는 고교학점제의 최소한의 시행을 큰 틀의 방향으로 놓아야 할 것임. <p>• 고교학점제는 대입제도 개혁과 교육 자치를 위해 포기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는 비정상적인 우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하나의 이정표이자 실천 과제이며 교육과정 개정의 뇌관이지만, 아직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이제라도 서두르자는 것과 그러니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임. - 치열한 입시경쟁은 몇몇 대학만이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때문이며, 대학의 포용적 상향평준화를 통해 입시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 고교학점제에 대한 우려도 대체로 불식시킬 수 있음. - 입시제도 개선 없는 고교학점제에 반대보다 고교학점제를 위해 입시제도의 개혁의 방향으로 뜻을 모아가기를 바람.
학습/과목 관련	<p>• 자율성 확대는 좋으나 공정에 주의해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기 교사에 집중의 문제, 그 해결책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 역량있는 온라인 수업 전문교원을 두어 전국 학생들이 공유 - 대학 비진학 학생이 원하는 진로직업 강의나 과목 개설 <p>• 학점 선택은 이수 시수의 40% 이하로 해야 적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고등학교 진학률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성, 해외국가 사례, 선택 교과과목 확대에 따른 외부 전문가 확대 시 교원자격증제의 기본취지 훼손 등을 고려하여 선택학점의 비중을 4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 <p>• 대입 유불리와 교사 수급에 따른 과목 개설과 학교 지정 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교육과정은 대입 유불리와 교사 수급에 따라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 과목의 개설 여부와 학교 지정 과목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음. - 학교별 교육과정이 교사 수급에 의존하기보다는 학생들의 선택과 관심, 진로에 의해 결정되기 위한 고심이 필요 <p>• 오버워치, 방승 댄스 수업 및 수능 선택과목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목에 차별이 존재하면 안됨
학교 밖 학점인정/학교 밖	<p>• 학교 밖 학점인정에 대한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학점 인정은 입시비리 가능성 및 지역격차 확대 우려

전문가 수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은 동의하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학기당 최대 한 과목으로 제한 • 학교 밖 전문가의 수업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밖 전문가의 범위와 교사와의 질적 차이 극복 방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공교육의 외주화 관련 - 사범대학생의 복수전공·부전공 장려, 교원 채용 인원 확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학생 지도 • 진로 관련 외부 수업 교육비 및 시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관련 수업이 현재 학교에 없어 외부에서 수강할 경우, 교육비 및 시간 지원 필요
제도 도입 및 정착 관련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 통합 학점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부터 수준별 수업을 위한 통합학점제 • 학부모가 지자체의 선택과목 강사료, 수업을 선택하도록 지자체의 재산세의 일부는 교육비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과목 이외의 과목은 진로에 필요한 선택과목으로 - 대학은 필수과목으로 학생 선발 - 지자체 재원으로 강사초빙 및 학생은 선택과목 운영에 따라 학교 선택 • 발생가능한 사례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착오에서 오는 비효율성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불균형적 집중이수를 예방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시간제 교사의 탄력적 운영, 교육직의 유연근무제와 대체인력 확충 - 반복적인 표준화된 이론교육은 온라인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 네트워킹을 위한 플랫폼 구축 • 고교학점제로 인해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直し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저하, 인원 편성, 시간표 배정, 대학입시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다루기엔 시기상조, 고교학점제를 다루고 싶다면 미래형 대입제도도 함께 논의해야

6.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에 대한 의견과 적용 방안

주 제	의 건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이를 위해서는 대입에 종속된 교육평가제도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함. • 교육과정 및 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전문성을 부여하고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춘 수업을 하기 위해 자율권 확대 필요. 단, 대학 입시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 • 학교의 자율권 확대에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함. 학생들이 자율성(주체성, 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들이 이를 지원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함. •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위한 시도는 이미 6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되었으나 교육과정 실행자들이 이를 실천할 만한 주체성과 역량을 확보하지 못해 형식적인 교육과정 자율권에 머물러왔음.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교류가 필요 • 학교와 교사들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주어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주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지역)이 자율권을 확대하는 현상을 일선 교사들은 또 하나의 시어머니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시도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권은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 • 교과에 대한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하여 교과융합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과정 내용(성취기준)을 교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함.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반대 및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자율권이 주어지면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생겨 우등반 열등반 식의 학력 격차가 생길 것을 우려 •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이 확대되면 교사의 이념(예: 페미니즘)을 교육을 통해 주입하는 일이 늘어날 것을 우려 • 지역별, 학교별 교육과정(학습내용)의 차이로 인한 학생들 간의 학습(력) 격차가 벌어질 것을 우려 • 지역마다 다른 학부모들의 욕망으로 인해 어느 지역에서는 교육과정 자율권이 명문대 입학에 위한 주지과목 위주 학교교육과정으로 변질될 우려 • 학교 급이나 학년이 낮을수록 동의하지 않음. 기초 학문이나 지식이 쌓이고 기본적인 도구를 활용할 수 있어야 새로운 지식도 쌓고 융합할 수 있음. 자율권 확대라는 말과 취지는 좋아보여도 초중고에서 자율권이라는 이름 아래 체계 없는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교육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을 것임. • 아무리 자율, 자기주도, 놀이 활동, 체험, 지역성 등의 교육이 흐름이지만 예전의 지식 기능의 기본적 학습능력이 바탕이 돼야 함. 그런 점에서 기본 과목은 국가에서 핵심 교육과정과 성취기준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지역, 학교가 행사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자율권의 영역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성 시 이수 과목 수를 학교 재량으로 정하기 • 교육과정 내용(성취기준)을 교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시수는 국가주도로 지역에 따른 자율권 부여하지 말고 균등하게 편성·운영하되, 교과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범교과(창체?) 시간을 확대하여 민주시민역량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 제공하고 교사연수 등 지원 강화 • 지자체간 역량과 재정 등 출발점부터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함.
학생들의 교사 선택 자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도 필요. 학생들이 교사들의 수업계획서(커리큘럼)를 참조하고 정치적 성향 등을 고려하여 과목 수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함.

7.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주 제	의 건
방치되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대책, 교육 소외 지역 아이들을 위한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차원의 지원 필요(예: 수원시 다문화가정 지원) • 저소득층 아이들 관리 문제, 온라인 시스템 학습기기, 온라인 학습교사 배치로 저소득층 아이들 교육시간 관리, 지자체별 저소득층 아이들(정보 소외, 보호자 부재) 지원 프로그램과 시스템 마련 필요 • 부모님의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사각 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학생이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이하의 단위인 통, 반 단위의 학습센터를 구축(대학생 멘토 활용) 지방, 소도시, 농어촌 지역 아이들을 위한 학교 역할 강화 필요. 양질의 방과후 수업 등 환경에 따른 맞춤형 교육 지원
온라인 수업의 장점 활용(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학교의 협력 방안 모색, 수준별 수업 실시 등 --> 반대 댓글(지금의 온라인 교육은 특수 상황이었음, 새 교육과정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해야 함) 온라인+오프라인 수업 잘 활용: 대면 수업+온라인상 보충 및 심화 진행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미래교육과정 대비, 앞으로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활용한 수업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대면 수업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와 학생 간 학습측면의 소통의 창구는 오프라인 공간이어야 하며, 대면 학습이 효과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업무지원팀의 역할 강화 및 수업 시수 감축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필요함. 아이들이 개별학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도 학습을 봐 줄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함. 꾸준히 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필요
학생들 개인 노트북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기, 장비의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작 <댓글 5개, 공감 6개> 가장 많았음, 5개 중 4개가 찬성 개인 노트북 지급, 또는 차선택으로 기기 구입비 지원(교복 구입비 지원처럼), 가장 현실적인 문제임, 정보 접근 격차 큼.
기초학력 협력강사의 목적성에 부합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 전후가 아닌 수업 중에만 활동한다는 것은 취지에 부합한 최적의 해결안이 아니므로, '기초학력수준 격차 해소'라는 목표 대비 성과 역시 더딜 수 밖에 없음.
학습격차 진단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의 학습 정도를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척도 마련 및 교사와의 지속적인 교감, 멘토로서의 교사의 역할 중요 진단평가 문항 사이트 잘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 교육청 차원의 집중 케어 필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타 강사 섭외, 현직교사 대신 온라인 강의 제작(교육부 예산), EBS 방송 활용한 과외 수업 학습 격차란 존재하지 않음. 아이들의 재능이 다를 뿐!, 학습 격차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있음. 학습 난민,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마을공동체 차원의 지원 필요 경쟁이 아닌 협업(협력)을 통한 학습 격차 해소 아이들의 정서 돌봄을 위해 학교 상주하는 상담사 배치, 학교 상담실 상시 운영: 핸드폰 중독, 학습의욕 상실, 정서적 불안 등 아이들 진단 치료

8. 자유 주제 토론

주 제		의 건
교과 교육 관련	IT관련 고등학교,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등 교사 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관련 미래 기술 교육과정 개설 필요: IT 관련하여 신기술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학교는 이를 못 따라 가고 있어, 학생들은 구식 기술을 배우는 상황임.
	영어 교육에 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화 위주의 영어교육 지향: 우리나라 영어 교육은 ‘독해’ 위주의 교육에 가까운데, 언어는 기본적으로 말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니, 회화 중심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음. <p><덧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시대에 듣기, 말하기가 안되면 일을 할 수 없음. 실무와 교육계 간의 가치관 차이가 매우 큼. 영어로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완벽한 독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영어 말하기 교육보다는 독해 교육 강화가 국가 발전을 위해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임.
	문학 교육에 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적 접근 방식의 문학 교육의 문제: 문학 교육은 자유로운 의견 표현, 다양한 감정의 경험, 작품을 통한 공감 등이 본연의 목적일 텐데, 작품의 일부를 발췌하여 분석적 교육을 하는 것은 획일화된 교육 모습을 낳고 있음. <p><덧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석을 강요하는 문학 교육은 이제 지양하길 바람. 요즘 학생들은 문학을 제대로 느끼거나 감상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함. 학습 위주의 교육으로라도 문항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좋겠음.
	예체능, 예술 교육에 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교육에서는 교과와 연계한 미술, 음악, 체육, 숲, 명신보감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선진국형 예술교과(음악, 미술, 무용, 연극)처럼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무용은 학생들의 몸-마음-정신교육 뿐 아니라 자기 표현을 통한 감정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술 교과군에 '무용'을 포함시켜야 함.
교육 정책 관련	다자녀 가족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녀 가족에게 가산점수 및 기회균등 제공: 다자녀 가족은 아이 1명당 공부방을 마련하는 것이 힘 드는 등 교육여건이 좋지 않음. 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가산점수 및 기회균등 필요
	돌봄 교실 확대 및 명칭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 교실 확대: 보육은 보호와 교육을 합친 말이라고 생각함. 초등학교생들은 특히 보호가 더욱 필요한 때이니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명칭변경(‘방과 후 교실’로): 돌봄 교실하면 보육을 먼저 떠올리게 되므로, 명칭을 돌봄 교실에서 방과 후 교실로 변경하면 좋겠음. <p><덧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양육자에 의한 돌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공교육을 그 위에 세워야한다고 생각함.
	자유학년제 적용 학년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학년제 실시 시기가 중학교 3학년이 보다 적합하다고 생각함: 고등학교 입시,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보면, 중3이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고 생각함. 자유학년제의 활동 내용도 변화할 필요성 있음: 현재 자유학년제가 지필시

	힘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학년제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봄.
초등학교 디지털 교과서 활용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 가방무게를 줄여줄 수 있게 디지털 교과서를 적극 활용: 아이들의 책가방 무게를 줄여주고, 코로나로 인한 교육격차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교과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봄.
교육과정에 대한 토론 이전에 사회구조에 대한 고민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입시가 인생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교육의 변화로 사회의 변화를 피하기 전에,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사회 구조에 맞춰 지금의 달라지고 있는 수업형식과 방법, 교육내용의 양과 수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기 바람.
직업계고 일반고 수능 과목 차이 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이과도 통합되었는데, 직업계고와 일반고 수능과목 차이를 두어 구분 해야하는가?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에 대한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학점제? 청소년이 행복한 곳이 되길 바람. • 꿈이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변하는데, 초등~고등까지 진로·직업을 탐구하는 시간을 바람.
코로나 상황에서의 전면 등교, 책임은 누가 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격차 해소를 이유로 전면 등교를 주장하는데, 학습 격차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임. 학습 격차 해소도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등교로 해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각종 진흥법, 보호법으로 수업을 강제하는 제도의 변화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수업 시수에 대하여 의무적 교육영향평가를 해서 과감히 줄일 것은 줄여 나가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함. 누가 맡는다고 할지라도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향상성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 부담이 적은 저학년일수록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역량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안전교육과 정규 교과 성취기준 연계를 강화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사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범교과 교육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교과 학습주제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개정되는 2022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에 대한 학습주제를 정규교과(교과 및 창체)에 녹여 별도의 범교과에 대한 수업시수 확보 부담을 줄여주기 바람. • 교육당국에서는 범교과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학교현장에서 효율적이며 내실있는 교육을 지원해 주었으면 함.
생기부, 자기주도적으로 셀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 특징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부에 교사 의견 적는 란이 없어야 함.